

현장사례(2)

CLEAN 3D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한산업보건협회 최 충 곤



작년 “5인 미만 사업장 표본 실태 조사” 시 방문하였던 ○○치과 기공소(서울 양재동 소재)는 남자 1명, 여자 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본업을 10여 년간 해온 30대 후반의 사장은 소박한 인상의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 사업장은 CLEAN 3D 사업의 작업환경 관리 분야인 보건지도 사업장으로 선정, 근로자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깨끗한 사업장 조성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연간 보건 관리 계획표를 작성하는 등 보건지도를 시작하였다.

업종 특성상 섬세하고 정밀성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작업공정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으로부터 주

문 의뢰를 받는 것으로 작업이 시작되는데 주문 종류에 따라 다소 작업 공정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와이어 밴딩(Wire banding), 수지 가공(Resin polishing), 광택(Polishing) 및 마무리 손질(Cleaning) 순으로 완성하여 납품하게 된다.

CLEAN 3D 사업 전에는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유해 인자의 노출 실태 파악은 어려웠지만 본격적으로 사용 취급 물질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가공 공정인 수지가공(Resin polishing), 광택(Polishing), 마무리 손질(Cleaning)에서 핸드 그린더(Hand grinder)사용시 에 음, 금속(금, 은 등)분진, 왁스 등의 물질

작업 중 눈을 비비거나 만져서 이물질로 인한 염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전, 후 또는 수시로 손을 청결히 한 다음 눈 마사지 또는 눈 운동을 권장하고 적절한 휴식을 병행하도록 지도하였다.

에 노출되어 있으며 Resin작업시 메틸알콜(Methyl alcohol),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모노머(Methyl methacrylate monomer), 수지(Resin) 등의 유해 물질에 노출 되어 있었다. 또한 가공 공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정밀 작업으로 인한 눈의 피로와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작업하는 하는 일이라 허리에 많은 통증을 호소하였다.

1차적인 눈 피로의 원인은 미흡한 적정 밝기로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장의 높이가 높고 1개의 형광등 사용하던 것을 2개로 사용하게 하고 작업대에 국소 조명을 병행하여 적정 밝기를 유도하였고 자연 채광을 병행하여 실내 밝기를 더했다.

그리고 작업 중 눈을 비비거나 만져서 이물질로 인한 염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전, 후 또는 수시로 손을 청결히 한 다음 눈 마사지 또는 눈 운동을 권장하고 적절한 휴식을 병행하도록 지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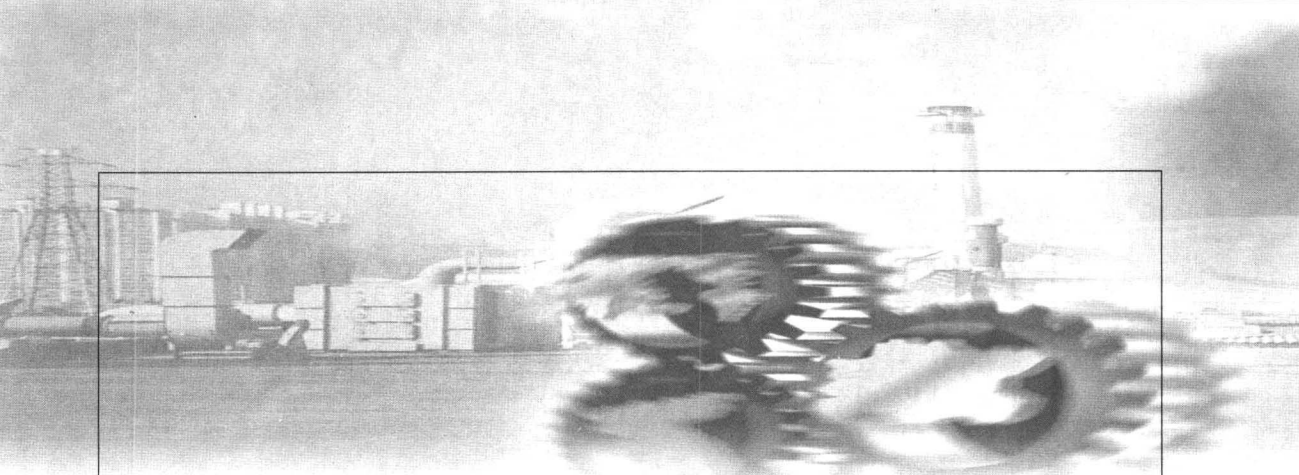
2차적으로 동통을 유발하는 원인은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부적합한 자세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자를 신체에 맞게 높이를 조정하게 하고 작업대와 설비는 작업자의 행동반경 내에 위치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팔꿈치 및 다리 관절 부위의 내각이 90°가 되도록 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고 신체에 가급적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0분 작업, 10분간 다른 작업을 병행하게 하거나 휴식 및 스트레칭을 하도록 권장하였다.

가공 공정 상에서 노출되는 분진, 유해물질은 공단의 무료 시설 개선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깨끗한 사업장으로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다.

신청 이후 공단에서 담당 직원이 방문하였다. 사업장에서는 분진을 억제할 수 있는 배기 시설이 딸린 작업대와 유기용제를 희석,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기를 기대하였는데, 정작 필요한 부분보다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의자 및 적정 밝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명이었다. 그것도 전구만 교체하고 하향 설치비용은 사업장 부담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CLEAN시설 개선 계획서' 및 '산업재해 예방 설비 투자 계획서' 작성 등이 번거로워서 취소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 동안 여건이 되지 않아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깨끗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하였는데 무척 아쉽다고 하였다.

최근, 치과 기공업도 예외는 아닐 듯 3D(Danger, Difficulty, Dirtiness)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일의 양에 따라서 집중도를 요하는 일이라 근무시간도 불규칙적이고 이따금씩 잔업으로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3개월 후 2회차 방문을 하였을 때 사업주의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물어 보았더니 공문 여러 장을 내밀면서 사업장 방문으로 인하여 사업장 정보가 유출되어 사업장의 입장이 불편하게 되었다고 하소연하였다.

무슨 내용인가 해서 자세히 검토해 보니 노동부에서 보낸 '2001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미실시에 대한 실시 촉구 및 결과 송부 관련 내용과 '2002년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을 조속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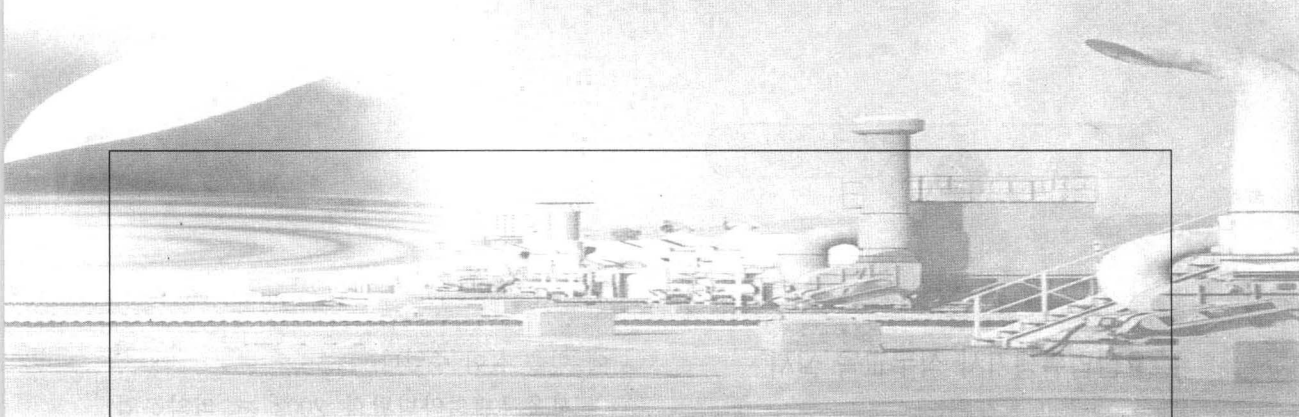
실시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보험료 납부 독촉 내용이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선 '실태 평가서' 재촉 공문이며, 관내 산업보건 수행기관으로부터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및 일반건강검진 실시 공문과 전화가 수시로 걸려 오면서 독촉을 한다고 하였다.

그 동안 이런 일이 없었으며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 사업 지도를 받으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매우 불쾌한 표정이었다. 나 역시도 당황하였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차근차근 취지를 설명하였다. 각 기관에 관련된 사업은 각기 다른 별개의 사안이며, 이것은 사업장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근로자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주의 무 사항이라고 이해를 시켰다.

다만, 사업주께서는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심적 부담을 드리게 된 것 같다고 말하고 덧붙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무료 시설 개선 지원은 받지 못하였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보건지도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연간 보건 관리 수행·평가 표를 내밀면서 평가를 부탁했더니 만족이라고 사인을 해주ering 것이 아닌가 의외였다.

업무를 마치고 3개월 후 다음 회차 때 뵙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나서 뒤돌아 나오는데 마음이 상쾌하지 못하였다. 앞서 관련 공문들에 관해서 자신있게 권유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의식의 부재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 볼 때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업무 수행에만 급급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끝으로 CLEAN 3D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3D요인인 위험(Danger), 힘들(Difficulty), 불편한(Dirtiness) 작업을 제거함으로써 산재를 예방하고 구인난을 해결하고 보다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갑작스러운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로

실적 위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사업의 좋은 취지가 반감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은 세계에서 드문 시범 사업이며,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일련의 노력인 만큼 처음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한민**

